

1. 있는곳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산16-1 국립부여박물관

2. 만들어진 시대

백제시대 위덕왕때

3. 만든 재료

청동

4. 발견된 곳

백제 나성과 능산리 무덤들 사이 절터 서쪽의 한 구덩이에서 발견되었다.

5. 보존상태

금칠은 많이 벗겨졌지만 원형에 가깝게 손상이 없이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다.

6 모양

크게 몸체와 뚜껑으로 구분되며 위에 부착한 봉황과 받침대를 포함하면 4부분으로 구성된다. 뚜껑에는 23개의 산들이 4~5겹으로 첩첩산중을 이루는 풍경을 보여주고 있다.

피리와 소비파, 현금, 북들을 연주하는 5인의 악사와 각종 무인상, 기마수렵상 등 16인의 인물상과 봉황, 용을 비롯한 상상의 날짐승, 호랑이, 사슴 등 39마리의 현실 세계 동물들이 표현되어 있다.

이 밖에 6개의 나무와 12개의 바위, 산 중턱에 있는 산길, 산 사이로 흐르는 시냇물, 폭포, 호수 등이 변화무쌍하게 표현되어 있다.뚜껑 꼭대기에는 별도로 부착된 봉황이 목과 부리로 여의주를 품고 날개를 편 채 힘있게 서 있는데, 길게 약간 치켜 올라간 꼬리의 부드러움은 백제적 특징이라 하겠다.

봉황 앞 가슴과 악사상 앞뒤에는 5개의 구멍이 뚫려 있어 몸체에서 향 연기를 자연스럽게 피어오를 수 있게 하였다.

몸체는 활짝 피어난 연꽃을 연상시킨다.연잎의 표면에는 불사조와 물고기, 사슴, 학 등 26마리의 동물이 배치되어 있다.

받침대는 몸체의 연꽃 밑부분을 입으로 문 채 하늘로 치솟 듯 고개를 쳐들어 떠받고 있는 한 마리의 용으로 되어 있다.

7.크기

전체높이 64cm, 지름 20cm

8.원래의 이름

원래는 백제금동용봉봉래산향로 또는 부여 능산리 출토 백제금동대향로라고 불렸으나 현재 문화재청에 백제금동대향로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이름은 백제금동대향로이다.

9. 가치, 의의

이 향로는 중국 한나라에서 유행한 박산향로의 영향을 받은 듯 하지만, 중국과 달리 산들이 독립적·입체적이며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창의성과 조형성이 뛰어나고 불교와 도교가 혼합된 종교와 사상적 복합성까지 보이고 있어 백제시대의 공예와 미술문화, 종교와 사상, 제조기술까지도 파악하게 해 주는 귀중한 작품이다.

1996년 5월 30일 국보 제287호로 등록되었다.

10. 역사적 사실

백제 불교문화의 융성함을 알 수 있다.

우수한 백제의 문화의 총체적 결합체라 할 수 있으며 백제가 멸망해 가는 과정중에서도 일본의 문화가 백제의 기술을 답습해 가듯, 백제와의 우호적인 관계에서 분명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기까지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현실적 사실과 역사를 뒤엎는 일본의 형태또한...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 백제와 일본은 과거로부터 매우 우호적인 관계 인 것만은 사실이다라는 것이 반증하는 거지요.